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육신의 신비

성경말씀: 마1:18-25

크리스마스 시즌, 1년을 마감하는 때, 온 세상 사람들(신자 불신자 모두)이 크리스마스를 즐긴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왜 크리스마스인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4세기 후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물

카톨릭 백과사전: 5세기에 이르러서야 카톨릭 교회가 12월 25일을 — 비록 이날이 태양신의 이름 중 하나인 솔(Sol)의 탄생을 기념한 고대 로마의 축제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했다. 하지와 동지

많은 경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 니콜라스(Old Nick), 사탄, Santa와 Satan
그러면 다 나쁜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휴일, 미국의 경우 3대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유일한 시간, 다수의 미국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날 집에서 쉰다. 휴식하는 날, 우리도 쉰다.

좋은 점: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므로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 그리스도교 축제
미국의 경우 모슬렘으로 알려진 오바마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특정 종교를 높이는 것이 된다고 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금지, Happy Holiday, 이번에 트럼프가 크리스마스를 다시 돌려줌. 말이 안 된다. 기독교 문명국가에 들어와서 살려면 그 나라의 전통을 존중해라. 심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됨. 예루살렘 수도 인정, 동성 결혼 뒤집을 가능성, 멕시코 장벽 남미 천주교인들 이동 방지, 이슬람 이동 방지, 일루미나티 세력들의 세계 정부 구상에 찬물을 끼얹음, 북한 핵문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이제부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뜻한다. 대략적으로 10월 15일
과연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요17:3,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가?

친구 친지들 “기독교는 진짜야?”, 대학 교수 “예수 이야기는 다 신화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진화론자, 각종 부정적인 이야기(성경,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행적)
“정말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가, 예수님은 확실한 분인가?”

구원을 고백하고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회의가 든다.

가나안 족속의 경우 아이들까지 진멸하라고 하면 실족한다.

영원한 지옥, 너무 한 것 아니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마16:13-17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나를 먹어야 산다.

많은 제자들이 왔다가 돌아감(66),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67-69)

요약: 그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지금 그들의 눈앞에 계신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최소한 이 의미를 알아야 한다.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데 있다. 성수주일, 헌금 등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육신 교리, 예수님은 누구인가: 참 하나님 참 사람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Incarnation), 요1:14, 성육신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것

1. 왜 성육신이 필요한가?

D. L 무디, 짧은 생물학도의 재미 언덕 발견, 큰 홍수가 다가온다. 위험이 다가온다, 알려주어야
한다, 개미들과 교통하려면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다. 성육신이 이와 비슷하다.

2. 그러면 인간에게 무슨 위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 창조: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

목적: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는 것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함, 이것이 죄

죄: 하르마타,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다. 아담의 죄 육체적 사망(첫째 사망), 우리의 죄 영원한 사망(둘째 사망)
이 위기를 알려주고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면 하나님의 성육신 필요

3. 성육신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된 것,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신성이 거하는 것이 아니다.
4. 그 결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하나님-사람'이다. 이로써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그분이 단지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없다. 히2:14-18,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울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다.
5.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의 속성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 결과 그분은 약하면서도 전능하시고, 물리적 한계로 인해 알지 못하면서도 전지하시고, 한계가 있으면서도 무한하시다. 그분은 갈증을 느끼셨고,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 날과 시간은 모르시고 심지어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사람'이다.
6. 성육신을 이루는 방법: 처녀 탄생(virgin birth), 처녀 탄생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의 수태이다. 이 수태는 초자연적이며 동시에 독특하다(unique). 사라, 한나, 엘리사벳 등의 초자연적인 수태와 다르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졌다.
7. 처녀 탄생: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이다. 인성을 취하시려고. 다만 예수님의 피 안에 죄성이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수태가 됨, 죄 없이 수태, 임신, 출생, 삶, 죽음, 부활, 승천
마리아는 죄 있는 존재로 출생, 죄인으로 죽음, 무염시태, 평생 동정녀, 몽소승천 교리 틀림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40번째 책, 시험의 책,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책

신약성경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은 존 생애를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에서 사시고 죽으시며 신약시대를 여심
1-17절은 예수님의 인성, 아브라함부터 요셉, 여자의 씨, 유대인, 다윗의 혈통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삼하7:12-13, 16, 눅1:31-33)

18-25절은 예수님의 신성

18절: 결혼 풍습, 정혼(언약, 육체 관계 No!),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됨,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 임신함(눅1:34-35),

19절: 요셉의 결단

20절: 주의 천사의 설명,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21절: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죄들에서 구원하신다.

22-23절: 구약 예언 성취, 사7:14; 8:8-10,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대신속죄

타종교의 신 혹은 창시자는 다 사람

알라: 이방인들의 월신,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잠30:2-4)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야 처녀 탄생 가능, 아들이 와야 하니까?

무함마드: 사람, 부처: 사람, 마리아 사람

그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불가능

죽는 사람 혹은 잡신들이 사람의 죄 문제 해결 불가능

구원 체계가 다르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다른 종교는 내가 해야 한다.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신뢰하면 죄들에서 구원받는다.

사람의 행위는 일조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 엡2:8-10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분만 신뢰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은 분은 성화를 이루자. 그리고 전하자. 예수님만 구원하심을